

〈춘향전(春香傳)〉 작품군(作品群)을 활용한 서사(敍事) 갈래 학습 방안*

신 원 기**

차 례

- | | |
|-----------------------|-----------------------|
| I. 서론 | IV. 서사 갈래 학습의 현장론적 적용 |
| II. 문학 체험과 갈래 학습 | 양상 |
| III. 교육과정에 제시된 갈래 학습의 | V. 결론 |
| 양상 | |

국문초록

본고는 갈래 개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갈래 학습이 잘 교육되지 않고, 학습자들의 갈래 개념 이해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갈래 개념의 이해를 위해, 우선 서사 갈래의 이해를 먼저 시도했고, 서사 갈래의 이해를 위해 <춘향전> 작품군을 활용하여, 서사 갈래의 학습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2009 한국문학회 하계 전국 학술발표대회(2009. 6. 27)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꼼꼼히 읽고 비판적 의견을 주신 토론자 이병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부산 동천고등학교

이를 위해 첫째, 갈래 학습이 문학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보았다. 갈래 학습은 학습자의 문학체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갈래 학습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교육과정은,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인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과서와 교육내용에서, 갈래에 대한 학습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갈래 학습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교실 수업에서 갈래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춘향전> 작품군을 활용하여 제시해 보았다.

주제어 : 서사 갈래, 갈래 학습, 문학체험, 소통 행위, 학습자 중심

I. 서론

본고는 문학의 갈래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의 문학 작품 감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문학의 갈래는 작품의 종류를 가리키는 단순한 의미로 받아 들일수도 있다. 하지만 갈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당 갈래의 특징과 작품의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갈래 구분은 관습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특징적인 요소에 따라 구분할 경우가 많으므로, 갈래 이해를 통해 갈래 요소를 알게 되고, 갈래 요소를 통해 해당 작품의 감상을 폭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사 갈래를 이해하게 되면, 서사 갈래의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시점, 갈등 등을 알게 되고, 인물, 사건, 배경, 시점, 갈등 등을 통해 특정 작품의 감상을 폭 넓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래는 문학의 존재 양식 또는 구성 원리이며,¹⁾ 갈래에 대한 이해는 문학의 창작과 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갈래 개념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갈래 학습이 많이 교육되지 않고, 학습자들의 갈래 개념 이해도 미미한 실정이다. 논자가 조사한 바로는, 현행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갈래 개념에 대한 단원이나 단원 수업목표가 없다. 교육내용에는 갈래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단원이나 단원 수업목표에 직접 언급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갈래와 관련된 수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갈래에 대한 교육내용과 단원이 설정되어 있는 교과는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에서 이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진다.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되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은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어’ 과목은 국민 기본 공통 과목이어서 모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지만, ‘문학’ 교과는 심화 선택 과목이어서 학생에 따라 이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²⁾ 이러한 교육과정을 따른다면, 갈래에 대한 교육내용과 단원 수업목표를 고등학교 학습자들은 배울 수도 있고, 배우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하위 갈래의 분류를 알고 있으나, 갈래 구분의 근거나 갈래 개념이나 상위 갈래나 하위 갈래의 개념 및 양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하위 갈래인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의 개념만 잘 알아도 작품 감상에는 불편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학의 갈래 구분은 작품이 어떻게 창작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의의가 있고, 문학사의 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³⁾ 현대소설, 고소설, 설화는 각각 고유한 특징이 있다. 그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면 해당 작품의 감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사’의 특징을 이해

1) 김준오, 『한국 현대 장르 비평론』, 문학과지성사, 1993, 11쪽.

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10-11쪽.

3) 동서문화연구소 편, 『비교문학총서』 1, 계명대학교출판부, 1979, 41쪽.

하게 되면, 현대소설, 고소설,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되어, 작품의 특징에 대한 통시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문학사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갈래 개념의 이해를 위해, 우선 서사 갈래의 이해를 먼저 시도하기로 했고, 서사 갈래의 이해를 위해 <춘향전> 작품군을 선택하기로 했다. 선행 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학습자들은 시 보다 소설을 더 잘 알고, 많이 읽고 있었다. 그리고 서사를 통해 서정, 극, 교술을 교육하기가 쉽다고 판단했다. 낯선 시를 읽어 내기보다는, 낯선 소설을 읽어 내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사 갈래의 요소는 다른 갈래 이해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발산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서사적 담화에는 동화, 우화, 소설, 판소리, 서사구연, 설화, 자서전, 수필, 희곡, 기사, 대화 등과 만화, 영화, TV 등의 다매체 서사물 등이 포함된다.⁴⁾

서사 갈래 중 <춘향전> 작품군을 선택한 이유는, <춘향전>이 민족의 고전으로 인정되어 고전문학의 입문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춘향전>은 몇 사람의 창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집단적 기(氣)의 축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광대한 것이다.⁵⁾ 즉 <춘향전>을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소망이었다.⁶⁾ 또한 서사 갈래인 <춘향전>이 설화, 판소리, 소설, 영화, 시 등 여러 갈래로 나타난 예를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휘 학습, 전통문화 학습 등 다른 학습 내용으로 전이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위에서 살핀 바, 본고의 목적은 <춘향전> 작품군을 활용하여 서사 갈래의 학습 방안을 고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갈래 학습이 문학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둘

4) 임경순,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2003, 37쪽.

5) 김용옥, 『새춘향전』, 통나무, 1989, 150쪽.

6) 백문임, 『춘향의 딸들, 한국 여성의 반쪽짜리 계보학』, 책세상, 2006, 22쪽.

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갈래 학습의 내용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교실 수업에서 갈래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문학 체험과 갈래 학습

문학 또는 문학적 사실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작가, 작품, 독자라는 3가지 계기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3가지 요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존립 근거를 마련해 준다.⁷⁾ 학습자는 작품을 통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한다. 학습자가 하나의 작품을 경험하고 난 후 의미를 간추리는데, 이때 경험하는 과정이 형식이요 간추린 것이 내용이다.⁸⁾ 이때 학습자가 파악한 의미는 단순한 이해에 그칠 수도 있고, 학습자에게 감동을 주어 정서의 울림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서의 울림을 감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을 하나의 소통 행위로 본다면, 작가-작품-독자의 소통 과정에서 수신자인 독자에게 일어나는 감상이 문학 체험의 최종적인 단계이다.

여기서 체험이란 언어로 표현된 작가의 체험, 곧 텍스트 ‘속’의 체험일 뿐만 아니라 독서행위의 문학적 체험, 곧 작품세계를 나의 현실로 ‘다시 산다’는 의미의 체험이다.⁹⁾ 문학적 경험은, 작가가 만든 세계를 독자가 새롭게 느끼는 것이다. 문학 독서는 단순한 이해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감상에 이르는 문학 체험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작품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과학 혹은 철학 이론은 이해의 대상이 되지만 예술로서의 문학 작품은 모든 예술 작품이 그러하듯이 감상의 대상이

7)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354쪽.

8)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예출판사, 1999, 8쪽.

9) 김준오, 「현상학적 비평의 수용과 문제점」, 『문학과 비평』, 1989 겨울, 288쪽.

된다.¹⁰⁾ 따라서 문학 독서가 비문학 독서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감상의 체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체험하는 것은 비평의 과정과 비슷하다. 비평이란 문학 작품의 의미의 '형상화'를 올바르게 나타내기 위해 작품을 분석하는 담화의 형식이다.¹¹⁾ 어떤 작품의 비평을 위해서는 해당 작품을 해석·감상·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석은 언어의 이해, 작품 이해, 작자, 시대 등을 밝히는 것이고, 감상은 작품을 해석하여 즐겨 어떤 울림을 가져와 쾌락을 느끼는 것이고, 평가는 미적 가치 기준에 의한 판단 작용을 말한다. 해석은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는 반면, 평가는 해석을 전제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다.¹²⁾ 따라서 해석과 평가는 논리적인 면이 강하고, 감상은 논리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문학체험은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체험이라기 보다는, 어떤 해석과 학습이 필요한 예술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적체험(美的體驗)으로서의 예술체험(藝術體驗)은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체험을 명확화하고 강화해 주는 것으로서, 생의 충실로 이끌어가는 의미있는 체험이다.¹³⁾ 즉, 문학체험은 미적체험이고, 미적체험에는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解釋)이란 곧 풀이하고 그 진실된 의미내용을 밝힌다는 뜻이니, 해석(interpretation)이란 것은 아직 어두운 곳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에 대해 광명을 부여함으로써, 그 존재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해명하려는 노력이다.¹⁴⁾ 따라서 문학체험은 저절로 주어지는 체험이 아니라, 학습과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체험의 바탕인 미적 가치는, 그것이 감각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10) 박이문, 『詩와 科學』, 일조각, 1993, 166쪽.

11) 제임스 그리블 저, 나병철 역,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1987, 60쪽.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12쪽.

13) 백기수,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196쪽.

14) 백기수,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189쪽.

것이건, 가치주체와 가치객체와의 상관관계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¹⁵⁾ 미적 가치와 심미 체험은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다. 심미 체험은 문학 작품의 이해나 감상이 작품에 구현된 미적 가치를 향유하고, 이를 학습자들이 자신의 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이다.¹⁶⁾ 미적 가치는 판단자의 욕망에 따라 상대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판단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소와도 어떤 인과적인 관계를 반드시 갖고 있다.¹⁷⁾ 즉, 작품의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인식이 작용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의 대상에도 어떤 객관적인 미의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학 작품의 분석에서는 독자의 훈련되지 않은 주관적·인상적 해석을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소위 감정의 오류(affective fallacy)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하여, 작품의 가치는 작품에 나타난 내적 조건의 분석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강하다.¹⁸⁾ 즉, 작품의 미적 가치는 작품의 내적 조건의 분석으로 가능한데, 작품의 내적 조건 분석의 기초가 갈래 개념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미적 가치의 파악을 위해서는 갈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에서도 갈래와 미적 가치의 밀접한 관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파악한다’라는 교육내용이 그것이다.¹⁹⁾

작가·작품·독자를 매개하면서 인간 경험의 예술적 형상화를 인도하는 여러 층위의 관습들이 일정한 연관을 갖추고 다수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갈래라고 부른다.²⁰⁾ 따라서 문학의 갈래에 대한 이해는 문학의 창작과 수용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작자는 갈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독자를 감동시키는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나 학습자는 갈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15) 백기수,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141쪽.

16)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94쪽.

17)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1998, 193쪽.

18) 구인환 외, 『문학개론』, 삼영사, 2002, 115쪽.

19)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63-64쪽.

20)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4, 30쪽.

있어야 작품 감상의 높이와 깊이를 크게 할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장르(갈래) 의식에 따라 작품을 쓰고, 작품은 나름대로의 장르적인 범칙성을 띠고 있으며, 그것을 읽는 독자는 자신의 장르 의식에 따라 작품을 읽는 것이다.²¹⁾ 따라서 일련의 문학현상, 즉 작품 자체, 작가의 창작, 독자의 수용에 이르는 과정은 갈래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학의 갈래 구분은, 문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된 것인데, 문학 작품은 어떻게 창작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탐구를 위해 필요하다.²²⁾ 즉,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해는 문학 작품 이해와 감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서정에 대한 이해 없이 시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감상은 어려우며, 서사에 대한 이해 없이 소설의 특성과 효과에 대한 폭 넓은 감상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극, 교술 갈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희곡과 수필의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의 갈래에 대한 이해는 문학의 창작과 수용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특히 학습자의 입장에서 문학 체험을 위해 중요하다. 문학 체험은 작품의 해석이 필요한 미적체험이고, 작품 해석은 갈래 개념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올바른 문학 체험을 위해 갈래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문학의 갈래는 작품 형성의 원리에 따라서 문학이 나누어져 있는 양상이어서,²³⁾ 갈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작품 형성의 원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는 심미 체험을 위해서는, 문학의 갈래 알기, 작품의 구성 요소 파악하기, 작품을 갈래의 특성에 따라 수용하기 등의 학습 요소가 필요하다.²⁴⁾ 따라서 서사 갈래를 이해한다면, 소설 작품 형성의 원리인 구성, 시점, 서술, 인물, 배경, 주제, 갈등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구성, 시점, 서술, 갈등에 대한 이해 없이, 서사 갈래에 대한 폭

21)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90쪽.

22)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275쪽.

2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6, 27쪽.

24)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53-54쪽.

넓은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Ⅲ. 교육과정에 제시된 갈래 학습의 양상

교육과정은 문서 속에 담긴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의 체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운영 등에 대한 종합 계획을 가리킨다.²⁵⁾ 이러한 교육과정은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에서 행하는 시간 단위의 수업도, 인식하지는 못해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 수업 역시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수 학습의 내용, 학습 방법, 평가 기준 및 원리, 준거를 제공하여 국어과 교육 체계를 총체적으로 조정한다.

교육과정에서 어떤 교과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교과의 지식, 기능, 가치 등에 관하여 서술한 것이 교육내용이다. 또한 교육내용은 추상 수준이 높은 이념과 목표를 구체적인 교육의 실제와 매개하는 중간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²⁶⁾ 이러한 교육내용은 추상적, 일반적, 거시적 수준의 요강인데, 이는 교과서를 통해 미시적 수준으로 구체화된다.²⁷⁾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물리적 실체라는 속성을 갖는다. 즉,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해당 교과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진술한 것인데, 교과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²⁸⁾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개념, 원리, 기능을 의미하며

25) 김대현 외,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2006, 25쪽.

26) 김상욱,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발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2005, 220쪽.

27)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386-387쪽.

28) 이홍우, 『교육과정탐구』, 박영사, 1987, 282-283쪽.

이홍우, 『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사, 2002, 273쪽.

교과서는 이들을 교수 학습하기 위한 교재이며 도구이다.²⁹⁾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내용’ 영역인데, 이는 교과서에서 구현해야 할 가치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 또는 학교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때, 교과서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내용의 의미는 교과서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교과서를 통해 구체화된다.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형태가 단원계획인데,³⁰⁾ 이로 보아 교육과정 내용 영역은 교과서의 단원목표, 학습목표로 구체화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교과서의 단원 학습목표를 연결시켜, 둘 사이의 관계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즉 10학년에 나타난 국어 교육과정의 ‘문학’ 부분 내용 영역이 교과서의 단원 학습 목표로 반영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³¹⁾

*7차 국어과 교육과정 10학년 문학 내용 영역의 교과서 반영 분석표

내용 범주	교육과정 내용	해당 학습 목표
본질	1)문학의 기능을 안다.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안다.(上1②)
원리	2)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한다. (上6①)
	3)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파악한다.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上6②)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下5①)
	4)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알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글을 매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上5②) 작가, 독자, 문학 작품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上5③)

29) 노명완 외,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1995, 92쪽.

30) 이영덕 외,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1998, 189쪽.

3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61-68쪽.

	5)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문학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上8②)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기른다. (上8③)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재조직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下2③)
	6)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문학적 표현의 효과와 방법을 안다. (下4②) 문학적 표현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下4③)
태도	7)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글을 매개로 집단과 집단, 사회와 사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上5②) 우리 문화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下7①)

* 해당 학습 목표의 괄호는 (교과서, 교과서 단위, 단위 학습 목표)를 지시함. 즉 (上 1①)는 『국어』 상권, 1단원, 첫 번째 학습 목표를 가리킴.

국어 교과에 속한 문학 영역의 교육내용은 모두 7개인데, 그 중 하나만 갈래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3)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파악한다.

이 항목의 학습 요소는 ① 문학 작품을 갈래에 따라 분류하기, ② 문학의 갈래에 따라 미적 가치가 어떠한지 그 특성을 파악하기 등이다. 이에 따른 학습 활동으로는 ① 문학 작품을 갈래에 따라 구분하기, ② 동일한 갈래의 여러 작품에서 미적 가치가 어떠한지 파악하기, ③ 여러 갈래의 작품에서 미적 가치를 비교하여 다른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④ 갈래에 따른 미적 가치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학 작품과 시대, 문화, 사회, 역사, 향유 계층을 관련지어 말하기 등이 있다.

국어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나타난 갈래 학습의 양상은 크게 2가지이다. ‘갈래에 따라 분류하기’와 ‘미적 가치의 파악’ 등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갈래 학습보다는 미적 가치 파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은 문학의 갈래는 단지 문학을 분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작품을 수용하여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하는 데 기여함을 인식하도

록 선정된 항목이라고 밝히고 있다.³²⁾ 이 진술을 따르자면, 문학 작품을 갈래에 따라 분류하여 미적 가치를 밝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갈래의 개념, 갈래 구분의 근거, 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의 구분, 갈래 구분의 양상 등은 학습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물론 중학교까지의 선수학습에서도, 갈래의 개념이나 근거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내용에 진술된 문학의 갈래는 ‘하위 갈래’일 가능성이 크다. 이후 교육과정의 진술에서도 갈래를 하위 갈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상위 갈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교육과정에서 ‘기본 갈래인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³³⁾ 사실 기본 갈래는 상위 갈래를 뜻하고, 시, 소설, 수필, 희곡은 하위 갈래에 속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는 상위 갈래의 언급이나 학습내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지로 해당 교육내용을 상세화한 교과서의 단위 수업목표에서도 갈래 개념이나, 상위 갈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즉 ‘3) 문학의 갈래에 따른 작품의 미적 가치를 파악한다.’라는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현행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上6②)’와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下5①)’의 수업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수업목표는 직접적인 갈래 학습, 즉 갈래의 개념, 갈래 구분의 근거, 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의 구분, 갈래 구분의 양상 등의 수업활동과는 거리감이 있다. 실지로 해당 단원의 교과서 어디에도 ‘갈래’라는 말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문학의 갈래 개념은 선택 교과인 『문학』 교과서에 나온다. ‘문학’ 교과는 심화 선택 과목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은 배울 수 없고, 2, 3학년은 선택 여하에 따라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교육과

3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63쪽.

3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312쪽.

정을 따르자면, 갈래의 개념을 배우지 않고, 갈래를 분류해야 하고, 이 갈래 분류를 통해 작품의 미적 가치까지 파악해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습자들에게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갈래 개념의 내용을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에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의 갈래 이해는 단순한 분류 이해에 그치지 않고, 문학의 창작과 수용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특히 학습자의 문학 체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 과목인, ‘문학’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갈래 관련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⁴⁾

- ① 문학 갈래의 개념과 갈래 구분의 원리를 이해한다.
- ② 갈래의 체계 속에서 문학을 통시적으로 이해한다.
- ③ 문학은 갈래와 작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미적 구조가 다양함을 이해한다.
- ④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기본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을 창작한다.
- ⑤ 한국문학의 개념, 성격, 갈래, 특질을 이해한다.

갈래 학습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은 ‘① 문학 갈래의 개념과 갈래 구분의 원리를 이해한다.’와 ‘② 갈래의 체계 속에서 문학을 통시적으로 이해한다.’와 ‘⑤ 한국문학의 개념, 성격, 갈래, 특질을 이해한다.’이다. 이 세 교육내용에 따른 세부 내용으로, 기본 갈래의 개념과 특징 이해, 우리 문학과 세계 문학의 하위 갈래 알기, 하위 갈래 분화의 이유와 원리 이해, 한국 문학의 하위 갈래 체계 이해, 시대에 따른 갈래 변화 양상 이해, 갈래 변화의 이유 이해, 갈래별로 전형적인 작품 감상하

34)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307-314쪽.

기,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이해,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질 이해 등이 있다.

그리고 갈래 학습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③ 문학은 갈래와 작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미적 구조가 다양함을 이해한다.’과 ‘④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기본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을 창작한다.’이다. 이 두 교육내용에 따른 세부 내용으로, 문학의 미적 구조 이해하기, 문학의 여러 요소들이 미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문화적 배경이 문학의 미적 구조를 결정하는 관계 이해하기, 문학의 개성과 보편성의 관계 이해하기, 문학 창작 원리 이해하기, 창작을 염두에 두고 작품 감상하기, 창작 활동 계획하고 조정하기 등이 있다.

문학교육과정의 교육내용에 나타난 갈래 학습의 양상은 크게 3가지이다. 갈래 개념의 이해, 미적 구조의 이해, 기본 갈래의 작품 창작 등이다. 국어과의 언어 활동을 크게 표현과 이해로 나눈다면,³⁵⁾ 작품 창작은 ‘표현’ 영역이고 갈래 개념과 미적 구조에 관한 것은 ‘이해’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해’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갈래 학습을 정리한다면, ‘갈래 개념의 이해’와 ‘미적 구조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미적 구조의 이해는 미적 가치의 이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미적 가치의 이해에는 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의 파악은 감각 기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식해야 한다.³⁶⁾ 다음 장에서는 주로 ‘이해’ 영역을 중심으로, 서사 갈래로 한정하여, 교실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갈래 학습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3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112-113쪽.

36)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53-54쪽.

IV. 서사 갈래 학습의 현장론적 적용 양상

본장에서는 ‘갈래 개념의 이해’와 ‘작품의 미적 구조 이해’를, 서사 갈래를 중심으로, 교실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갈래 학습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서사 갈래의 개념, 서사 갈래의 특성에 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했다.

실제 수업에서는 서사 갈래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그 이론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실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학의 갈래에 관한 이론을 터득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춘향전> 작품군을 제재로 하여, 서사 갈래의 개념과 양상, 서사의 특성 중 서술자와 시점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삼았다.

문학의 갈래는 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의 두 차원으로 존재한다. 상위 갈래는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작품을 구분한 것이다. 상위 갈래는 자아와 세계의 관계, 그리고 작품외적 자아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 여부에 따라 서정, 서사, 희곡, 교술로 규정된다.³⁷⁾ 이에 따르면, 서정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이고, 교술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는 자아의 세계화이고, 희곡은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이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고, 서사는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이를 교과서에서는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주관적인 문학(서정),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서술·전달하는 문학(교술), 사건을 무대 위에서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 주는 문학(극), 사건을 이야기로 표현한 객관성이 강한 문학(서사)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위 갈래인 서사 갈래에 속하는 하위 갈래는 신화, 전설, 민담, 소설, 만화, 영화 등이다. 신화는 자아와 세계의 상호 보완적인 대결이고, 전설은 세계의 우위, 민담은 자아의 우위,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상호 우위로

37)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290-291쪽.

이루어지는 대결이다. 만화, 영화 역시 자아와 세계의 상호 우위로 이루어지는 대결인데, 소설과는 매체에서 차이가 있다. 만화는 글과 그림으로 표현되고, 영화는 영상과 음성, 음향으로 표현된다.

서사 갈래를 갈래 개념의 학습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학생들의 선호도와 소설의 문학교육적 특성 때문이었다. 문학 작품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단연 소설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소설이라는 갈래가 작품 내부의 ‘인격적 존재자’와 ‘감상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갈래이기 때문일 것이다.³⁸⁾ 그리고 학생들의 일상에서 서사 즉 이야기는 끊임없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서사와 친숙함을 느끼는 이유일 것이다. 학습자들은 날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매일매일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즉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은 타자의 욕망을 이야기의 구성요소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자와 이야기를 요구하는 자 사이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아야 한다.³⁹⁾ 이러한 서사의 일상성이 학습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으리라 여겨진다. 서사교육의 이념적 지향은 서사적 존재로서의 자아 확립, 세계 발견 능력의 고양, 세계 해석 능력의 함양, 세계 창조/재생산의 체험 확충에 있다는 말도,⁴⁰⁾ 학습자들이 서사를 선호하는 어떤 이유로 볼 수 있다.

서사 갈래 중 <춘향전> 작품군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춘향전>을 한국 서사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서사 갈래인 <춘향전>이 설화, 판소리, 소설, 만화, 영화 등 여러 하위 갈래로 나타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업 과정에서 자료로 제시한 <춘향전> 작품군은 판소리인 박동진의 <춘향가>(예전미디어, 2001), 고등학교 『국어』 하권에 298~309쪽에 실린 완판본 소설 『열녀춘향수절가』의 일부, 만화로 된 『춘향전』(허순봉 지음, 능인, 1992),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2000) 등이다. 해당 장면은 이야기 전개의 절정인 암행어사 출두

38)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473-474쪽.

39) 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122-123쪽.

40) 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35쪽.

장면으로 했다.

서사 갈래의 특성을 수업 요소로 삼은 이유는 학습자의 문학체험과 미적 구조, 미적 가치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갈래 학습은 미적 구조, 미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 갈래의 특성을 잘 알 때, 해당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체험의 최종 단계는 감상 즉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는 단계이다. 문학체험을 위해서는 갈래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사의 특성 중 서술자와 시점을 수업 내용으로 삼은 이유는, 서술자와 시점이 서사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정 갈래나 극 갈래와 구분할 수 있는 서사 갈래의 고유성과 특성을, 서술자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 갈래는 이야기 세계와 서사적 거리를 확보한 중개자(서술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⁴¹⁾ 따라서 서술자는 서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서사의 필수적인 존재인 서술자가 이야기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과정이 시점이다.⁴²⁾ 그래서 서사는 서술자가 바라본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양식이 된다.⁴³⁾ 따라서 서술자와 시점을 제대로 알아야 소설의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고, 학습자의 문학체험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A. 학생 이해 자료

1. 조사 방법

1.1 대상: 부산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100명(한 반에 무작위로 10명씩, 10반을 조사함)

1.2 방법: 설문지법

1.3 일시: 2009년 3월 24일 ~ 4월 3일

41)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24-25쪽.

42)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378쪽.

43) 제럴드 프린스 지음, 이기우·김용재 옮김, 『敘事論辭典』, 1992, 162쪽.

2. 학생 실태 조사 결과 및 시사점

2.1 문학 교과에 대한 태도

* 평소 문학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니까?

- ① 아주 그렇다 13명 (13%)
- ② 그렇다 49명 (49%)
- ③ 그렇지 않다 30명 (30%)
- ④ 아주 그렇지 않다 8명 (8%)

* 문학 교과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어렵다 3명 (3%)
- ② 어렵다 30명 (30%)
- ③ 보통이다 67명 (67%)
- ④ 쉽다 0명 (0%)
- ⑤ 매우 쉽다 0명 (0%)

문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긍정적 반응이 62%, 부정적 반응이 38%였다. 학습자의 대다수가 문학 수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학 교과서의 내용을 쉽다고 생각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 33%나 되었다. 문학 수업에는 흥미가 있으나, 교과서의 내용이 어렵다는 반응이므로, 교과서 내용을 더 쉽게 만들든지, 교과서를 쉽게 가르치든지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2.2 문학 수업 준비도 및 참여도

* 평소에 문학 공부를 많이 하는가요?

- ① 아주 그렇다 3명(3%)

- ② 그렇다 8명(8%)
- ③ 그렇지 않다 70명(70%)
- ④ 아주 그렇지 않다 19명(19%)

평소에 문학 수업 준비도 및 참여도는 긍정적인 답변이 11%, 부정적인 답변이 89%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2.3 문학 영역 선호도

* 문학 영역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갈래(장르)는 무엇입니까?

- ① 시(서정) 13명(13%)
- ② 소설(서사) 62명(62%)
- ③ 희곡(극) 11명(11%)
- ④ 수필(교술) 14명(14%)

문학 영역 중 서사나 소설에 흥미가 있다는 반응이 62%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접근하기가 쉽고, 이야기의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 제재에 대한 이해도

* 문학의 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요?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0명(0%)
- ② 잘 알고 있다 11명(11%)
- ③ 대충 알고 있다 49명(49%)
- ④ 잘 모른다 32명(32%)
- ⑤ 전혀 모른다 8명(8%)

* 서사 갈래의 특징과 그 하위 갈래를 알고 있는가요?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0명(0%)
- ② 잘 알고 있다 16명(16%)
- ③ 대충 알고 있다 24명(24%)
- ④ 잘 모른다 46명(46%)
- ⑤ 전혀 모른다 14명(14%)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문학 작품을 접해왔지만, 갈래에 대한 이해도는 아주 저조했다. 상위 갈래, 하위 갈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11%였고, 대충 알고 있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89%였다. 이는 문학 작품에 대한 총체적이 접근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이 우선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학의 영역 중 서사 갈래를 좋아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사 갈래에 대한 이해도 역시 부족했다. 서사 갈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60%에 달했다.

B. 단원의 개관

1. 대단원명: 3. 문학의 갈래⁴⁴⁾

2. 대단원 설정의 이유⁴⁵⁾

이 단원은 문학의 기본 갈래를 알고 각 갈래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문학 수용과 창작의 기초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문학의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분법에 따른 구분을 기초로 하여, 다시 구연(口演)과 기록(記錄), 국문(國文)과 한문(漢文), 정형(定型)과 자율(自律) 등의 특성에 따라 하위 갈래를 구분할 수 있다. 시대적 변천도 하

44) 해당 교과서는 김윤식 외, 『문학』 상, 디딤돌, 2003.

45) 대단원 설정 이유, 대단원 학습 목표, 대단원 교수-학습 운영 계획 등은 ‘김윤식 외, 『문학』 상 교사용 지도서, 디딤돌, 2003, 106-107쪽.’을 참고함.

위 갈래 구분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 내용과 관련된 학습에서는 다양한 하위 갈래들의 작품을 접하고, 그들을 비교하여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3. 대단원 학습 목표

- 3.1 문학의 갈래가 무엇이며, 문학의 갈래를 서정, 서사, 극, 교술로 구분하는 원리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 3.2 각 갈래가 지니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별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3.3 문학 갈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문학 작품의 창작과 수용 과정에 어떻게 유익한 것인지를 안다.
- 3.4 국문학에서 하위 갈래들이 변천해 온 양상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대단원 교수-학습 운영 계획

구분	교수-학습 내용	시수
중단원 도입글 준비 학습	*단원의 목표와 도입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기	1
(1)문학 갈래의 이해	도입글 *갈래 개념 이해하기	1
	1.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서정 갈래의 본질과 특성 이해하기 *화자의 내면 세계 이해하기 *‘강물’의 상징적 의미 이해하기	
	2. 부끄러움 *교술 갈래의 특징 이해하기 *수필의 교훈적 특성 이해하기 *짧은 수필 써 보기	1
(2)문학의 갈래 구분	도입글 *문학의 하위 갈래 알기 *문학 갈래의 발전 양상 이해하기	1
	1. 인형의 집 *극 갈래의 특성 이해하기 *인물의 갈등 파악하기 *희곡의 한 장면 꾸며 보기	
	2. 모래톱 이야기 *서사 갈래의 특성 이해하기 *서사에서 서술자의 의미 알기 *짧막한 소설 쓰기	1

정리 학습	정리	*학습 내용 정리 및 점검	1 (본시) [86-90쪽]
	보충	*<열녀춘향수절가>의 갈래 구분하기 *<열녀춘향수절가>의 갈래 구분 근거 말하기	
	심화	*<열녀춘향수절가>의 갈래 구분하기 *<열녀춘향수절가>의 갈래 구분 근거 말하기	
단원의 마무리		대단원 학습의 최종 점검 및 활동	

C. 교수-학습 과정의 실제

1. 본시 학습 목표

- ① 문학의 갈래 개념을 기본 갈래(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로 나눌 수 있다.
- ② 서사 갈래의 특성과 서사 갈래에 속하는 하위 갈래들을 알 수 있다.
- ③ <열녀춘향수절가>의 갈래를 나눌 수 있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2. 평가 계획

- ① 문학의 갈래 개념을 기본 갈래(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로 나눌 수 있는가?
- ② 서사 갈래의 특성과 서사 갈래에 속하는 하위 갈래들을 아는가?
- ③ <열녀춘향수절가>의 갈래를 나눌 수 있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3.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대단원	3. 문학의 갈래	소단원	* 작품의 갈래 구분하기 (86-90쪽)	차시	6/6
학습 목표	① 문학의 갈래 개념을 기본 갈래(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로 나눌 수 있다. ② 서사 갈래의 특성과 서사 갈래에 속하는 하위 갈래들을 알 수 있다. ③ <열녀춘향수절가>의 갈래를 나눌 수 있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학습 요소	문학의 갈래, 문학의 갈래 구분 근거				

교수 - 학습 전개 과정				
단계	학 습 내 용(자료)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교 사	학 생	
도입	*전시 학습 확인 *학습 목표 제시(ppt)	*전시에 학습한 내용을 질문한다.(교과서 86쪽 참조) *학습 목표 제시	*문학의 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를 답한다. *학습 목표 확인	7
전개	*본문 읽기 *판소리 CD *만화 <춘향전> *영화 <춘향전> *제재의 갈래 변용 *상위 갈래 확인 *하위 갈래 확인 *상위 갈래 구분 근거 *서술자와 서사의 개념 *서사의 기본 상황 *서술자와 시점 *하위 갈래 구분 근거	*교과서 87쪽 읽기 *교과서 단어 정리 *판소리 <춘향가> 듣기 *만화 <춘향가> 제시 *춘향전 영화 보기(4분) *같은 제재가 소설, 판소리 사설, 만화, 영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 *교과서 87쪽의 글은 어떤 갈래에 속합니까? *상위 갈래 구분 근거는? *서술자란 무엇인가? *서사란 무엇인가? *서사의 기본 상황에서 서술자의 위치는? *서술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시점을 구분해 봅시다. *본문의 글을 판소리 사설 또는 고전 소설로 구분하는 근거는?	*원하는 학생 읽기 *본문의 새단어 정리 *<춘향가>듣기(3분) *만화로 된 <춘향전>의 2~3 장면을 본다. *영화 <춘향전> 보기 *춘향이라는 제재가 서사 갈래의 다양한 갈래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발표한다. *서사 갈래, 판소리 사설, 고전 소설 *상위 갈래 구분 근거를 발표한다. *서술자와 서사의 개념에 대해 토의, 발표한다. *서사의 기본 상황을 학습한다. *소설의 시점을 학습한다.(교과서에서 예를 찾는다. 83, 208, 231, 19쪽.) *판소리-판소리 사설-판소리계 소설-고전 소설	35
정리	*본시 학습 요점 정리하기 (학습지)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오늘 한 공부를 확인해 봅시다. *과제 제시	*요점 확인하며 학습지 하기 *질문하기	8

* 부록

1. 학생 이해 설문지

*이 설문은 학생 여러분들의 문학 수업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고, 보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1. 평소 문학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니까?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아주 그렇지 않다

2. 문학 교과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쉽다 ⑤ 매우 쉽다

3. 평소에 문학 공부를 많이 하는가요?

- ① 아주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아주 그렇지 않다

4. 문학 영역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갈래(장르)는 무엇입니까?

- ① 시(서정) ② 소설(서사) ③ 희곡(극) ④ 수필(교술)

5. 문학의 상위 갈래와 하위 갈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요?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대충 알고 있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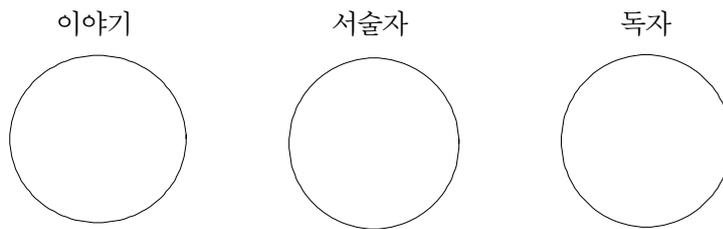
6. 서사 갈래의 특징과 그 하위 갈래를 알고 있는가요?

-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대충 알고 있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2. 학습지

학번: 성명:

1. (서정) 개인의 정서를 표현한 주관적인 문학
향가, 고려 속요, 시조, 시
2. (서사) 사건을 이야기로 표현한 객관성이 강한 문학
소설, 서사시, 판소리 사설, 설화
3. (극) 사건을 무대 위에서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 주는 문학
희곡, 가면극, 인형극, 창극
4. (교술)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서술, 전달하는 문학
수필, 악장, 편지, 일기, 기행문
5. (서술자) 사건을 독자에게 들려주는 화자(話者), 말하는 이, 전달자
6. 서사의 기본 상황



7. 시점

시점	외면적 관찰	내부적 분석
서술자가 이야기 속의 인물	1인칭 () 시점	()() 시점
서술자가 이야기 밖의 인물	3인칭 () 시점	3인칭 주인공 시점

<형성평가지>

학번: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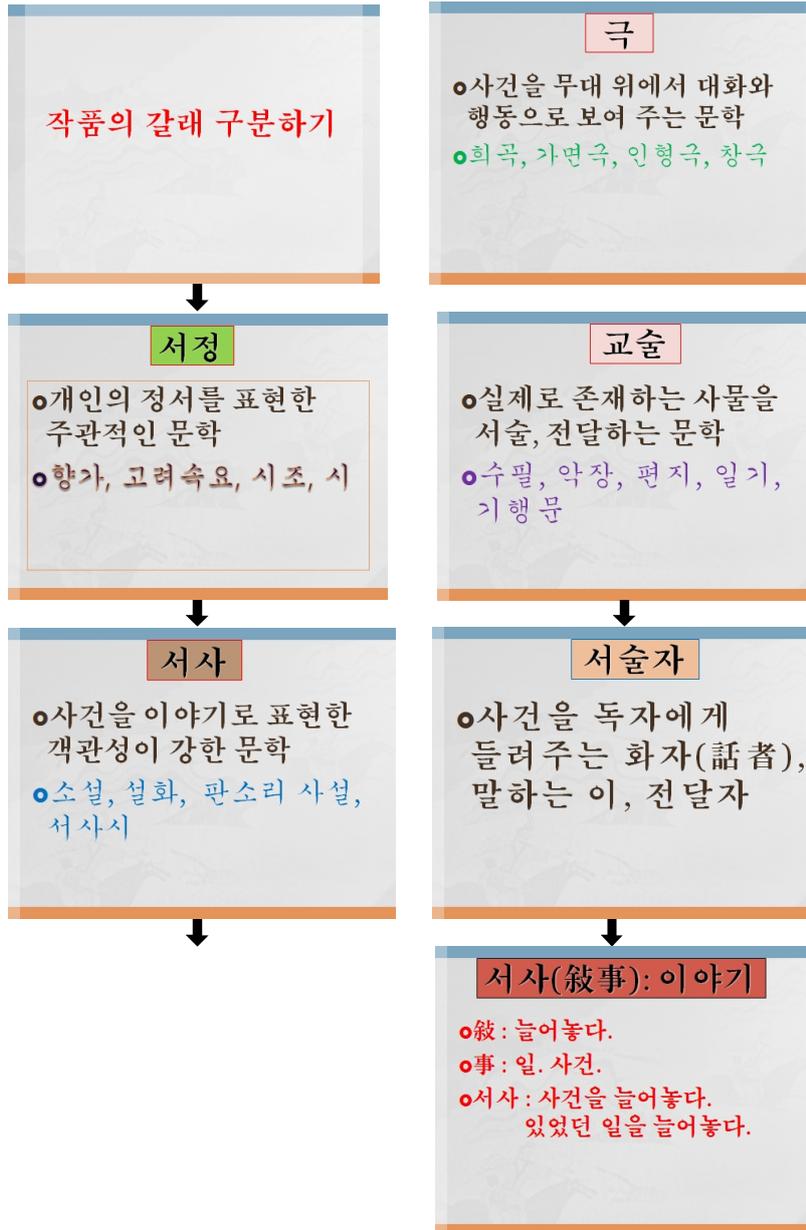
1. 이 글의 표현상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산문 속에 부분적으로 4·4조의 운문이 쓰이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여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과거 시제를 통해서 사건을 설화적으로 간추리고 있다.
- ④ 의태어, 의성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청자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듯한 종결법을 쓰고 있다.

2. 이 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주관적인 문학 작품이다.
- ② 사건을 이야기로 표현한 객관성이 강한 문학 작품이다.
- ③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서술·전달하는 문학 작품이다.
- ④ 사건을 무대 위에서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 주는 문학 작품이다.
- ⑤ 자아와 세계의 대립보다는 자아와 세계의 조화를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다.

3. 프리젠테이션 자료



V. 결론

위에서 <춘향전> 작품군을 활용한 서사 갈래의 학습 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갈래 학습이 문학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보았다. 갈래 학습은 학습자의 문학체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에 제시된 갈래 학습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교육과정은, 국민 기본 공통 교육 과정인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과서와 교육내용에서, 갈래에 대한 학습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갈래 학습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교실 수업에서 갈래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춘향전> 작품군을 활용하여 제시해 보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춘향전> 작품군은 글로 표현한 소설, 창과 아니리로 표현한 판소리 사설,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만화, 영상으로 표현한 영화 등이었다.

본고는 갈래 개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갈래 학습이 잘 교육되지 않고, 학습자들의 갈래 개념 이해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논자가 제시한 학습 방안은 완전한 방안이 아니라, 갈래 학습의 예시적인 방안이다. 이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갈래 학습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서사 갈래 뿐 아니라, 서정, 극, 교술 갈래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도 필요하다. 단 이러한 학습 방안을 계획할 때, 교수-학습의 중심에서 학습자를 항상 고려했으면 한다. 문학의 소통 행위 뿐 아니라, 교수-학습의 소통 행위도 최종적인 소통은 학습자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10-11쪽.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53-54쪽.
-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예출판사, 1999, 8쪽.
- 구인환 외, 『문학개론』, 삼영사, 2002, 115쪽.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94쪽.
- 김대현 외,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학지사, 2006, 25쪽.
- 김동욱 외, 『춘향전 비교연구』, 삼영사, 1979, 20-70쪽.
- 김병국 외 편,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춘향문화선양회, 1993, 10-130쪽.
- 김상욱,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발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2005, 220쪽.
- 김용옥, 『새춘향던』, 통나무, 1989, 150쪽.
- 김윤식 외, 『문학』 상, 디딤돌, 2003, 86-90쪽.
- 김준오, 「현상학적 비평의 수용과 문제점」, 『문학과 비평』, 1989 겨울, 288쪽.
- 김준오, 『한국 현대 장르 비평론』, 문학과지성사, 1993, 11쪽.
- 김현룡, 『열여춘향수절가』, 아세아문화사, 1996, 165-167쪽.
-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4, 30쪽.
-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24-25쪽.
- 노명완 외,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1995, 92쪽.
- 동서문화연구소 편, 『비교문학총서』 1, 계명대학교출판부, 1979, 41쪽.
- 박이문, 『詩와 科學』, 일조각, 1993, 166쪽.
-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1998, 193쪽.
- 백기수,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189-196쪽.

- 백문임, 『춘향의 딸들, 한국 여성의 반쪽짜리 계보학』, 책세상, 2006, 22쪽.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12쪽.
- 설성경 외,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문화사, 1993, 3-156쪽.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190쪽.
- 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2001, 35쪽.
- 이영덕 외,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1998, 189쪽.
- 이홍우, 『교육과정탐구』, 박영사, 1987, 282-283쪽.
- 이홍우, 『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사, 2002, 273쪽.
- 임경순,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2003, 37쪽.
-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354쪽.
-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275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6, 27쪽.
- 조현설, 『춘향전,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나라말, 2007, 190-204쪽.
-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386-387쪽.
- 제럴드 프린스 지음, 이기우·김용재 옮김, 『敍事論辭典』, 1992, 162쪽.
- 제임스 그리블 저, 나병철 역,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1987, 60쪽.

<Abstract>

A teaching method of narrative genre using several <ChoonHyangGeon(春香傳)>

Shin, Won-Gie

So far, I examined a teaching method of narrative genre using several <ChoonHyangGeon(春香傳)>. For the investigation, we, first go through what meaning genre studying has in the literature education spot. I can find that genre studying plays an important role for learner's literature experience.

Second, I examined for the substance of genre studying presented on the curriculum. In result, I recognized that the current curriculum didn't reflect the contents of genre studying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and its substance for the first graders of the highschool, which is National Core Curriculum.

Third, despite the importance of genre studying, this hasn't been reflected properly in a textbook. So, I presented the genre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can be used in classroom, utilizing several <ChoonHyangGeon(春香傳)>.

This study was begun in the judgement that, in spite of the significance, the genre studying wasn't carried out well in classroom and learners don't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genre. The method I presented is not the perfect method, but a illustrative method of genre learning. I hope that the better method of genre studying will come out after making up for the shortcomings.

230 한국문학논총 제53집

Key Words : genre studying, narrative genre, literature experience,
concept of genre

■ 논문접수 : 2009년 11월 5일

■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